世界環境의날 그 배경과 현실

朴 昌 根
〈(社)環境教育會 委員長〉

6월 5일은 세계 環境의 날이다.

그러니까 우리네 방식(?)으로 따진다면 1년 365일중 이날 하루만이 환경의 날로 환경의 중요성을 각성하면 되고 나머지 364일은 환경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날 즉, 환경을 외면하는 날이라는 계산이 된다.(?)

심한 自嘲라고 하겠지만 우리네 그 많은 날 중에서 그 무엇도 말고 植木日 하나만 보아도 알 수 있다.

4월 5일을 植木日로 정한 것은 光復 다음해인 1946년 부터였다. 그러니까 40년전 부터 우리는 해마다 4월 5일이면 植木日이라고 해서 직장을 쉬고 학교를 놀면서 까지 官民이 나무심기에 법석대어 온 것이다. 40년의 세월을 말이다.

그렇다면, 지금 쯤 우리의 山河에는 온통 40년생 소나무, 30년생 느티나무, 20년생 은행나무, 10년생 포플라에 9년생 은사시, 8년생 벚나무, 5년생 벽오동 등이 발디딜 곳 없이 들어찬 밀림이어야 옳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밀림이기는 커녕 그럴듯한 숲도 없다. 아직도 벌거숭이인 채의 野山에 어제, 그제 심은 가냘픈 묘목이 갈대발 마냥 바람에 나부끼고 있을뿐…

그것은 4월5일 하루만이 植木日이고 그 나머지 날들은 나무를 베어내고,불태우고, 뽑아 버리는 날이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4월5일 植木日의 植樹도 나무를 심어 山을 푸르르게 한다는 정성은 털끝만치도 없고, 오직 植木日 그 정해진 날의 行事를 치루는 요식 행위로 여겨 묘목을 아무렇게나 땅에 묻어 죽이기에 바빴던 것이다.

이것이 40년 세월을 지켜 온 우리네 植木日이였다.

이것이 우리네 방식의 무슨무슨 날인 것이다.

그러니 환경의 날을 맞아 이런 서글픈 넉두리를 안할 수 있겠는가?

아니, 어쩌면 이 날이 아직 정부적 차원에서 환경의 날로 정해지지 않은 것을 천만 다행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아닐런지?

하여간 6월 5일은 올해로 열네번째 맞는 세계환경의 날이다.

1. UN인간환경회의를 열게된 속사정

1970년까지 세계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그다지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었다. 1952년 London Smog로 4,000여명이 죽었어도 아니, 1900년 이래로 80種 이상의 동물들이 여러 雜多한 환경적 조건 때문에 이 地球上에서 영원히 사라져 가고 있었을 때도, 그리고 1962년 Rackel Carson이 살충제 DDT의 위험에 대한 경종을 울린 「침묵의 봄(Silent Spring)」을 출간했을 때도 사람들은 환경에 대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1965년 일본의 큐우슈우 구마모도縣의 한 작은 어촌 도시 미나마따에서 분명한 환경오염 때문에 사람들이 손, 발이 마비되고, 미쳐 죽어가자 세계는 환경오염의 위해성을 깨닫기 시작했으며, 그 후 1970년이 되면서 大氣의 變化가 심상치 않아 萬年雪과 氷河가 전 세계적으로 15%나 증가하고 그린란드에서는 100년만의 최저 온도가 기록되는가 하면, 모스크바 일대에서는 수세기 이래 최악의 가뭄이 들었고, 뿐만 아니라 가뭄은 중앙 아메리카, 남 아시아, 중국, 호주 및 사하라 남쪽을 휩쓸자 세계는 때늦게 환경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1972년 6월 5일 세계 114개국의 대표들이 저하되어 가는 지구의 환경의 質을 개선시키기 위해 스톡홀름에 모인 것이다.

즉, 人種과 言語, 宗敎와 思想 등을 서로 달리하는 나라일 망정 단 하나뿐인 지구의 절박한 상황-환경 오염에 의한 인류 생존의 위협-그 긴박한 현실 때문에서였다.

2. UN인간환경회의의 정치바람

UN인간환경회의는 환경에 관한 인간의 인식에 있어서 하나의 새로운 高遠이라는 찬사를 받을 만한 인류의 예지였다.

그러나, UN인간환경회의에 참석한 1,200명의 각국 대표들은 그동안 인류가 풀지 못했던 人種, 言語, 宗敎, 思想 그 자체만큼이나 까다로운 조건 속에서 하나의 공통된 인류의 문제를 푼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임을 懷疑하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회의 개막 전부터 정치가들은 상투적인 정치 놀음을 폈다. 즉, 소련의 경우 동반자(?) 동독이 UN회원국이 아니여서 당연

히 표결권을 얻지 못했는데도 그것을 트집잡아 불참을 선언하는가 하면 선진국과 저개발국, 富國과 貧國 사이의 깊은 不和가 회의를 완전히 물거품으로 만들 상황까지 몰아갔다.

특히 개발도상국들은 만일 공해가 간절히 요구되고 있는 공업화의 부산물(必要惡)이라면, 그것을 감수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또한 富國들이 대외 원조를 위한 예산에서 公害防止를 위한 예산을 공제하지 않을까 두려워했으며, 先進工業國家들의 成長이 둔화되기라도 하면, 수출 수요가 감소되어 개발도상국가들이 타격을 입게 될것을 걱정했다.

그래서 UN인간환경회의의 사무총장인 캐나다 모리스 스트롱은 이 문제를 놓고 작업을 했다. 즉 스트롱은 가난한 나라들에 대해 그들에게도 역시 쾌적한 환경이 중요하며, 국제적인 도움을 얻어 그들 都市의 汚染된 물, 하수처리 등과 같은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한 全世界的인 운동을 展開했다.

스트롱은 또한 그들에게 UN인간환경회의는 토양 침식과 사막화의 擴大와 같은 주요 문제들을 진지하게 다루게 된다는 것도 확신시키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인도 수상 인디라 간디는 제3세계 국가들을 대변해서 이렇게 말했다.

> 우리는 대다수 국민의 암울한 빈곤을 단 한순간이라도 잊을 수 없다. … 촌락과 빈민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삶 그 자체가 근원부터 汚染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大氣와 河川 그리고 海洋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일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는가?

스트롱은 貧國들의 어려운 처지를 이해했다. 그리고 그는 UN인간환경회의에서, 그 生産이 公害를 유발시키는 合成원료 보다는 천연상품의 교역을 장려하는 결의안 채택을 위해서 힘썼다. 그리고 스트롱은 이를 반대, 저지하려는 일부 富國들에게 이렇게 힘주어 항변했다.

> "개발도상국가들이 工場의 굴뚝을 成長의 상징으로 생각하는 것을 보고, 선진국가들이 놀라워하는 것이야말로 뻔뻔함의 극치이다. 당신네들이 지금까지 줄곧 그렇게 해오지 않았는가?"

3. 인류의 위대한 선언 「UN인간환경선언문」

하여간, 여러 雜多한 政治的인 비난의 우여곡절 끝에 가까스로 대

표들은 환경 그 자체문제의 토의에 들어갈 수 있었으며, 16일간에 걸친 15차례의 공식회의와 많은 비공식회의 끝에 1972년 6월16일 오전 5시 대표들은 드디어 다음과 같은 감동적이며, 예지에 찬 선언문을 작성하기에 이르른다.

"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 Having Met at Stockholm from 5 to 16 June 1972. Having Considered the Need for a Common Outlook And for Common Principles to Inspire and Guide the Peoples of The World in the Preservation and Enhancement of the Human Environment, Proclaims That : "

이어 선언 7조, 원칙 26개 항의 선언문은 다음과 같은 大義로 인간과 환경의 상호 의존성, 귀결성, 공유성을 제시했다.

"존엄하고 행복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좋은 (쾌적한) 환경은 하나의 기본적 인권이며, 인간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것은 인간의 엄숙한 책임이다.

모든 국가들은 다른 국가들에게 환경상의 피해를 주지 않을 책임이 있으며, 富國들은 貧國들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再生 불가능한 資源의 고갈과 海洋汚染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핀이 마련되어야 한다.

도든 核 무기는 폐기되어야 한다.

이제 우리는 세계 어느 곳에서나 환경에 미치는 결과에 대해 보다 깊은 관심을 갖고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안되는 역사적 시점에 이르렀다."

1972년 12월 UN총회는 인간환경회의의 선언을 UN의 정책으로 채택하고 58명의 실무진으로 구성된 환경 사무국을 발족시켜 인간환경선언문의 감동적인 취지를 실천 계획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다음해인 1973년 6월, 새로 구성된 사무국과 사무국의 운영위원회가 제네바에서 최초로 회합을 가졌으며, 다시 1974년에는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 지은 상주 본부 건물로 옮겨 선언을 뒷받침하는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

후에, UN인간환경회의 사무총장인 모리스 스트롱은 이렇게 평가했다.

"세계가 공통된 하나의 이데올로기 또는 세계 정부 (UN과 같은 한계가 아닌)를 앞세워서 통일될 것 같지는 않다.

유일한 실제적인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세계가 이제는 세계 그 자체의 존속에 대한 관심, 모든 나라 국민의 본질적인 상호 의존의 인정 그리고 협조적인 행동이 모든 국민들의 시야를 넓혀 줄 수 있다고 하는 인식에 대하여 이제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것이다."

4. 1년 365일이 환경의 날이여야 한다.

환경이란 인간 활동에 의해서는 아무리 용의 주도하게, 또 아무리 환경을 우선한다고 하여도 파괴되기 쉬운 것이다. 즉, 환경이란 파괴되기 마련인 조건인 것이다.

지금 우리가 大氣로, 海洋으로 퍼붓고 있는 毒은 매우 民主的이어서 어느 특정인, 특정 지역, 특정 국가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부자나 가난한 자, 죄 없는 자나 죄 지은 자를 불문하고 햇빛 처럼 평등하게 누구에게나 그 피해를 주기 마련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오염원이 大氣와 海洋을 통해 이웃 日本이나 中共에 또는 바다 멀리 저편 英國의 안개 속에 갇혀 제2의 London Smog를 불러 올지도 모르며, 또한 프랑스의 오염된 海洋이 海流에 따라 우리나라의 연안에 피해를 주어 제2의 Minamata병을 불러 올지도 모르는 것이다.

즉, 단 하나뿐인 地球 위에 세계 또한 하나여서 이제는 公害에 대한 공동 방어를 위해 뭉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의 그 탐욕한 범죄로 하여 세계가 病들고 우리가 病들수 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 세계환경의 날은 개인 나라의 날이 아니고, 우리 모두 공동의 날인 것이다.

아직 우리네는 정부적 차원에서 인정되지 않고 있는 환경의 날,그래서 이 6월 5일 하루만은 세계 환경의 날이 되고, 나머지 364일 모든 날은 우리의 환경의 날이 되어 주길 비는 心事.

우리들 環境人만의 간절한 소망일까? *